

Special theme 2

통일 한국의 유망 산업

남북통일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산업발전 경로,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통일에 따른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되게 된다. 이에 사실상의 섬나라 처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육상 교역이 가능한 대륙 경제 국가로 변신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권의 동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가 단숨에 8,000만명에 근접하면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한 인구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 지하자원, 산림, 해양, 수자원 등 다양한 국가 자원의 증가로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가 강화된다는 점도 통일의 효과다. 특히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등 남북한의 생산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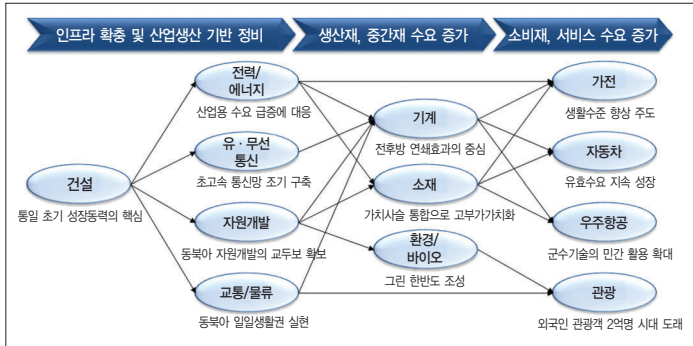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가 연장된다는 점도 대표적인 통일경제의 효과다. 이는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들이 제2의 성장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일 이후에는 개발동상국의 일반적 성장경로가 아닌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Quantum Leap)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편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통일의 기대효과다.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통일 이후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 주도의 계획개발 초기 단계에는 생산 기반시설 확충, 도시 및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본격적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및 12대 유망 산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및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남한의 민간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어 생산재, 중간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또한 고용 증가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잠재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되면서 소비재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권 동반 성장, 서비스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12대 유망 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성장의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반도 북부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경제권의 동반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및 소득수준 향상,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전문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한국의 유망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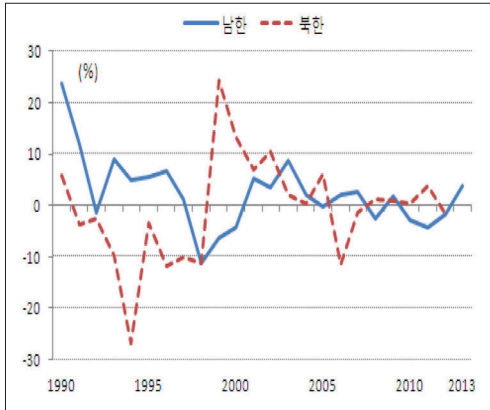
건설 :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

현재 남한은 고속성장기를 지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북한은 만성화된 경제침체로 건설업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 즉 남한의 건설업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침체되며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2013년 플러스로 전환되며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건설업은 2000~2005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의 건설업 규모는 북한보다 22배나 크지만 성장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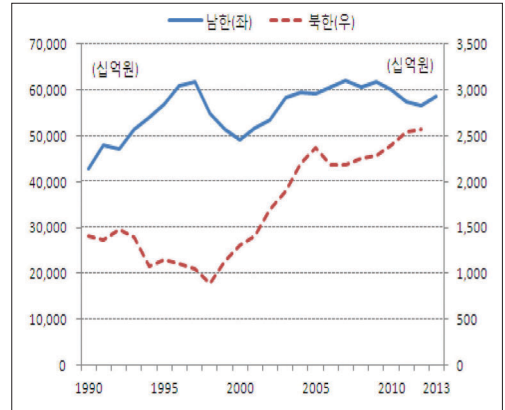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통일이 될 경우 계획개발 초기 단계부터 북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및 도시개

남북한 건설업 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주 : 실질기준

남북한 건설업 생산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부가가치기준, 실질기준

발을 중심으로 경제 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은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구축, 교통·전력·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건설 사업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남북한 건설업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건설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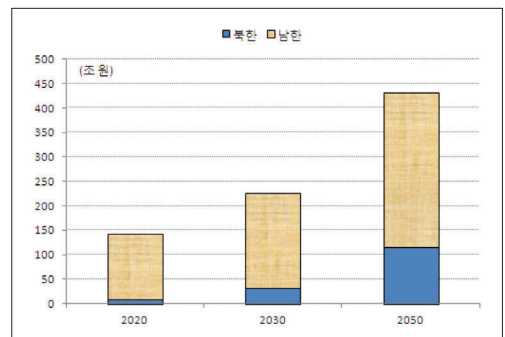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단위 : %)

구분	2015~2020	2012~2030	2031~2050
통일 한국	2.5	3.5	2.3
남한	2.3	3.0	1.5
북한	10.2	12.0	4.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규모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2010년 가격 기준

전력/에너지 : 산업용 수요 급증에 대응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지만 이후 화력과 원자력발전을 크게 늘린 남한에 추월당해 2012년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 규모는 남한의 1/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발전설비는 노후화 및 부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효율성이 하락하여 실제 발전량은 남한의 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 이후에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설비 확충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지역의 전력 생산

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일 이후 2050년까지 북한 지역의 발전설비는 2012년 대비 8배, 발전량은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의 전력량과 발전설비 추정

구분	계획개발단계(2015~2020)		고속성장단계(2021~2030)		안정성장단계(2031~2050)	
	발전설비(천kw)	발전량(억kWh)	발전설비(천kw)	발전량(억kWh)	발전설비(천kw)	발전량(억kWh)
남한	97,600	6,100	121,920	7,620	130,560	8,160
북한	7,220	328	13,140	716	58,482	3,637
전체	104,820	6,428	135,060	8,336	189,042	11,79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남측 전망은 2014년 1월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에 의거)

자원개발 : 동북아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유용광물 200여종)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매장량이 풍부하고, 국내 자급도가 낮으며 개발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으로는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이 꼽힌다. 하지만 신규 광산의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전력 부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생산량이 줄기 시작해 2000년대부터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남한의 광산물 자급률은 7.6%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와 더불어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희유금속의 개발 가공과 연계한 산업 성장도 기대된다. 특히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할 경우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비교 및 가용 연한

구분	남한			북한	남한 수요분의 50% 북한 조달시 가용연한
	보유규모 (억달러)	내수규모 (억달러)	자급률 (%)	보유규모 (억달러)	
금	18	14.1	4	857	122년
철	7	231.6	1	8,775	76년
마그네사이트	-	0.8	0	24,048	60,120년
인상흑연	2	0.2	0	30	300년
인회석	-	1.5	0	270	360년
합계	27	248.2		33,980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 보유 규모 및 내수 규모는 2011년 수입단가 기준

교통/물류 : 동북아 일일생활권 실현

남한의 육상물류는 국내 여객 수송의 97.7%, 국내 화물 운송의 86.6%를 담당하고 있으나, 분단으로 인해 육상물류가 완전히 봉쇄됨에 따라 국제 육상물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제 1의 교역 상대국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의 육상 교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물류산업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물류산업은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단동을 통한 대 중국 교역이 70%를 차지하는 등 육상 물류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철도는 수송분담률(86%), 총연장(5,299km), 전철화율(80%)이 모두 남한보다 높지만 대부분 단선이고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다.

통일 이후 부산~서울~신의주를 잇는 고속철도와 북경~선양~단동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까지 1일 생활권으로 묶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철도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종단철도(TKR)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이후 물류 산업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전체 물류산업 생산액 (GDP 대비 비중)	61 (4.0%)	89 (4.8%)	175 (5.6%)	344 (6.9%)	677 (9.2%)
육상물류 생산액 (GDP 대비 비중)	24 (1.6%)	36 (1.9%)	87 (2.8%)	206 (4.2%)	474 (5.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이에 따라 물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10%에 육박하며 국가 중추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산업의 생산액은 2015년 61조원에서 2050년 677조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4.0%에서 2050년 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전혀 성장하지 못했던 육상물류가 빠르게 성장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 : 가치사슬 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남한의 소재산업은 세계 6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는 등 경제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첨단 소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에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철광석, 비철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금속공업 및 석탄화학 공업 생산체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생산능력의 성장이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통일 이후에는 전후방 가치사슬 통합으로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소재 수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가격경쟁력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재 품목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향상됨에 따라 소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희유금속, 희토류 등을 원료로 하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술경쟁력도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50년경 통일한국의 소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일본을 넘어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이후 소재산업 성장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산액	351	566	1,340	2,892	5,690
내수	215	346	770	1,415	1,859
수출	136	220	569	1,477	3,8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시사점

통일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 구축,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공유, 정치·경제적 추진력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남과 북의 민·관 모두가 통일과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남북간 소득격차 축소, 당국자간 신뢰 회복, 긴장 완화 및 화해 무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기존 경제협력 사업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통일 이후 성장이 주목되는 12대 산업에 대한 발전 로드맵 및 시나리오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다. 즉 단계적,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전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한편, 12대 중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 확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등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